

'EBS-e' 영어수업 대상 받은 광주 신암초교 수업 들어보니

랩·퀴즈·마술 '놀이 영어' 아이들 흥미·집중력 쑥쑥

지난달 30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신암초교 6학년 1반 교실. 5교시 수업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이 학교 정지영(여·36) 영어교사가 축구공과 마술도구 등이 잔뜩 담긴 바구니를 들고 교실 안으로 들어섰다.

원어민 교사 틈틈이 발음교정

아이들과 간단한 영어 인사를 나눈 정 교사는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더니 'EBS-e(www.ebse.co.kr)'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어 TV 모니터에서 동영상과 함께 신나는 영어 랩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 날 수업 주제는 'Where are you from?(너는 어디에서 왔니?)'.

정 교사와 아이들은 모니터에서 나오는 랩 리듬에 맞춰 울동과 함께 'Where are you from'을 반복해서 따라 불렀다. 다음은 영어 퀴즈 시간.

정 교사는 이날 가지고 온 바구니에서 세계 각국의 대표 음식과 수도 등을 묻고 답하는 내용이 담긴 퀴즈판을 꺼내 들었다.

랩 음악으로 영어수업에 집중하기 시작한 아이들은 영어퀴즈 맞추기에도 적극성을 보였다.

정 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원어민 교사 레타라 벨로스(여·24·미국)씨는 수업시간 틈틈이 아이들의 발음교정을 도왔다. 수업시간이 20분이 지났지만, 탄 짓을 피우는 아이는 단 한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이어진 수업은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종이 활용한 마술쇼.

정 교사가 절반으로 접은 종이봉투의 일부분을 사각형으로 자른 뒤 종이를 펼쳐 갑자기 사각형이 하트 모양으로 변했다. 아이들의 입에선 '와~'라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사각형 등 각종 도형을 영어로 표현하는 수업을 진행한 것. 5교시 40분동안 정 교사가 선보인 수업방식만 모두 4가지. 정 교사의 수업은 'EBS-e' 사이트와 교과서를 접목해



신암초교 정지영 교사가 6학년 영어 수업 시간 도중 퀴즈를 맞춘 아이의 얼굴에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다.

음악과 율동으로 긴장을 풀 뒤 퀴즈로 집중도를 높이고, 마술 등을 적용해 흥미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 정 교사가 같은 수업법을 도입한 것은 2년 전 'EBS-e'를 접하면서부터다.

게임 등 눈높이 맞춘 수업 효과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의 지원으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영어 교습법을 배우기도 한 정 교사는 주입식 교육보다는 학생의 흥미를 돋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노래와 게임, 요리, 마술, 문법쇼 등이 담긴 'EBS-e'를 수업에 접목

하고 있다. 교사 경력 12년차인 정 교사는 "영어에 대한 흥미와 실력을 높이기 위해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수업을 받은 최준기(6학년)군은 "예전엔 영어시간이 지루하고 두렵기만 했는데, 요즘은 너무 재밌다"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성적도 많이 올랐다"며 즐거워 했다.

한편 정 교사는 최근 EBS에서 주최한 EBS-e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나원침 (7775) 김장두



무안 산불 70대노인 숨져

10일 오전 10시40분께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 봉대산에서 불이나 흉모(72)씨가 숨지고, 부인 이모(69)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화재로 임야 0.1ha가 불에 탔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청 헬기 1대와 공무원 30여명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무안군청은 화재 부부가 발두령을 태우던 중 불이 인근 산으로 번지자 진화에 나섰다. 불이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무안=대성수기자dss@kwangju.co.kr

순천 부녀자 납치범 검거

순천경찰은 10일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부녀자를 납치해 3시간 동안 감금한 김모(50)씨를 납치·감금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40분께 순천시 덕월동 모 대학교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A(여·52)씨에게 접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보성군 벌교읍의 한 모텔에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역대 금품 출진 2명 붙잡아

여수경찰은 10일 유류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습차에 걸쳐 반집에 침입해 금품을 출진 이모(24)씨 등 2명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7시께 여수시 봉산동 김모(여·35)씨의 주택에 침입해 시계를 훔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37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출진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park@

경찰 '귀가조치' 하자 술김 폭행

○"택시를 잡아줄 테니 귀가하세요"라는 경찰의 말을 듣고 마구 욕설을 내뿜은 40대 회사원이 주먹까지 휘두르다가 결국 경찰서로.

○광주서부경찰은 10일 순찰차에 탑승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 이모(42)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9일 오전 7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삼촌동 모 식당 앞에서 '취객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상무 지구대 소속 박모(38) 경장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

○경찰에서 이씨는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경찰이 '모욕죄로 입건하겠다'는 말에 순간 화가났다"며 선처를 호소. /이중행기자 golee@

저수지 말라간다

올 들어 가뭄 지속

저수율 54% 그쳐

올 들어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저수지의 물부족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10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농어촌공사 전남본부가 관리하는 광주·전남지역 1천41개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균 54.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7.1%)에 비해 32.8%나 낮은 것으로, 최근 30년간 평균치인 평년 평균(83.2%)을 크게 밑돌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농업용수 저수지인 나주호(8만7천800㎡), 장성호(8만4천800㎡), 담양호(6만4천800㎡), 광주호(1만5천200㎡) 등 4대호 저수율은 48.9%, 전년(80.0%)의 절반 수준을 겨우 넘길 정도의 심각한 물부족 현상을 보였다.

전남본부는 "오랜 가뭄으로 광주·전남의 지자체가 관리하는 2천300여개의 소규모 저수지 저수율이 평상시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가뭄극복을 위해 저수지 준설사업 등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한 낮 28도

광주·전남 초여름 날씨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11일 광주·전남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고 10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12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상되는 등 낮에는 다소 더울 것으로 보인다.

휴일인 12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8~12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해상날씨도 주말과 휴일 모두 맑겠으며, 곳에 따라 안개가 끼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1m로 낮게 일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문산초등학교 학생들이 10일 문을 연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문산어린이공원에서 두 팔을 활짝 들어올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어린이들이 설계한 광주 문산공원 개장

문어 밧줄·나이트 광장 갖춰 '기적의 나무와 놀이 숲' 조성

광주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조성한 문산 어린이공원(본보 2008년 6월 21일자 4면, 10월 28일자 16면)이 문을 열었다.

이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설계에 참여한 어린이공원을 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산 어린이공원 개장식이 10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문산 어린이공원에서 열렸다. '광주 푸른 길' 가꾸

기 운동본부'와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조경설계연구실', '북구 문화의 집' 등이 참여한 문산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은 한국토지공사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1991년 문흥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문산 어린이공원은 이 사업 시행 전까지만 해도 관리

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설이 낡고 각종 쓰레기로 넘쳐나는 등 어린이공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러나 '광주 푸른 길' 가꾸기 운동본부' 등과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 이 공원의 디자인 컨셉트를 '기적의 나무와 놀이 숲'이라고 정한 뒤 친환경 놀이공원으로 바뀌었다.

문산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디자인을 제안한 높이 1.2m, 넓이 113㎡의 '나이트 광장'과 직접 디자인한 '문어 형상의 밧줄 타기 기구', '새싹을 담은 의자' 등 각종 놀이시설이 만들어져 있다.

조동범 전남대 교수는 "어린이공원은 단순한 놀이공간이 아닌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이용하며 사회를 배우는 중요한 교육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중행기자 golee@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급속 확산

광주 보건환경연구, 검출률 39%로 급증... 환절기 감염 주의보

영유아에게 감염될 경우 심하면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는 로타바이러스가 광주지역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0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소아장염 환자들을 상대로 원인 병원체 84건을 검사한 결과, 33건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돼 검출률이 39.3%에 달했다. 지난해 말 6%에 불과했던 검출률은 지난 2월 27%로 증가했으며, 한 달여 만에 다시 10%가 증가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환절기

큰 기온 차로 인해 로타바이러스의 개체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초기에는 감기증세를 보이던 구토와 설사를 동반하며, 특히 영·유아의 경우 탈수와 영양장애까지 진전될 수 있어 증상이 의심되면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로타바이러스는 급속이나 플라시틱 표면 등의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 소독을 하더라도 잔존할 수 있어 연구원 측은 영유아인 경우

놀이방이나 식당 등 다중이용장소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광주미래아동병원 김병희 원장(52)은 "아무리 손을 씻어도 로타바이러스는 쉽게 제거가 안되며, 가정 내에서는 특히 번기나 세면대 등에 대한 청소를 신경 써야 할 것"이라며 "영유아의 경우 이유 없어 구토나 설사가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하며, 치료에는 5~6일 정도가 걸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에는 제주도에서 로

▲ 로타바이러스 (rotavirus)=장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수레바퀴모양이기 때문에 '로타'라는 이름이 붙었다. 2~3세의 영유아에서 주로 발생하며, 대부분 늦가을부터 겨울철에 걸쳐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환절기에 개체수가 급증한다.

타바이러스에 감염된 3개월 된 영아가 탈수증세로 사망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6분 해질 19시 02분 달돋이 20시 57분 달짐 06시 30분

꽃길 걷다보면 땀 송글송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맑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10/27C
목포	맑음	10/22C
여수	맑음	12/22C
완도	맑음	9/25C
구례	맑음	6/27C
해남	맑음	5/25C
장흥	맑음	5/26C
고흥	맑음	6/26C
순천	맑음	10/25C
영광	맑음	5/23C
진도	맑음	6/24C
전주	맑음	7/26C
남원	맑음	4/27C
속초	맑음	11/17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서	0.5~0.5m	목포 03:13	08:18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서	0.5~1.0m	15:09	20:23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여수 09:47	03:47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22:21	15:46

◇주간날씨 기상인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10/25	11/23	12/21	10/20	7/17	6/18